

제일영도교회 장년주일학교

1월23일(주일) 오후1:30~2:30

# Leadership Conference

## 제3강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직분자

김창환 목사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행복한 직분자

부제: 장로 / 집사 / 권사에 대하여

## 들어가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롬12:5<sup>1</sup>).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 한 교회를 섬기며 한 분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라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다양한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나의 직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의 직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장로, 집사, 권사의 직분을 함께 살펴보고서 서로를 이해함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고자 한다.

## I. 장로

### 1. 장로직의 유래

#### 가. 구약성경

- 1) 장로라는 단어는 창세기50:7(자켄: נָזִיר)에 처음 등장한다.
- 2) 이후 모세(24:12<sup>2</sup>)의 출애굽 시대와 왕정 시대(왕하19:23<sup>3</sup>)에도 있었다.

#### 나. 신약성경: ‘장로’ 65회 등장

- 1) 산헤드린 소속 평신도 대표로서의 장로
  - 2) 각 지역 회당 대표로서의 장로
  - 3) 기독교교회 지도자로서의 장로
- 가) 예루살렘 원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장로(행11:30<sup>4</sup>)가 있었다.
- 나) 바울이 세운 이방교회 지도자들로서의 장로(행14:23<sup>5</sup>)가 있었다.
- 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24명의 천상의 장로들(계7:11<sup>6</sup>)이 있다.

#### 다. 교회의 역사

- 1) 칼빈의 제네바 치리회

---

1)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2)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3)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굶은 베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4)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5)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6)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 라. 장로직(제도)의 의의

구약의 장로직(제도)이 신약교회에 의해 계승되었다. 중세교회의 폐단인 교황정치와 감독정치의 폐단은 장로직(제도)으로 개선이 된다. 한편 회중정치는 지나치게 평신도 위주의 정치를 추구한다. 이렇게 볼 때 장로직(제도)은 균형 잡힌 이상적인 교회의 한 정치 형태라 볼 수 있다.

## 2. 장로의 직무

고신총회 헌법 제66조에는 장로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sup>7)</sup>

- ①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 ②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
- ③ 교인을 심방, 위로, 교훈하는 일
- ④ 교인을 권면하는 일
- ⑤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부를 살피는 일
- ⑥ 언약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
- ⑦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 ⑧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는 일

이를 분석해 보면 장로의 직무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교회를 위한 직무와 교인을 위한 직무이다.

### 가. 교회를 위한 직무: 감독인 장로

신약성경은 장로를 감독이라 부른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급히 가기 위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부탁한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에피스코포스, ἐπίσκοπος)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행20:38)”라고 말한다. 장로가 수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직무가 바로 ‘감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감독은 교회를 잘 관리하여 교회가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목사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협력자로서 봉사하며 교회의 제반 행정을 돌아보고 섬긴다.

7)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헌법개정위원회, 헌법, 총회출판국, 2015, 280

## 나. 교인을 위한 직무: 교인들을 영적으로 파수하는 장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벧전5:18)라고 표현하면서 그 장로의 역할이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장로는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양 떼를 치는 자이다. 그렇기에 마지막 날에 목자장 예수님께 그 직무에 대해 보고 해야 한다. 장로는 양 떼가 목자장의 음성을 듣고 잘 따르도록 해야 한다. 장로인 자신이 먼저 목자장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 그 때 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얻으며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양 무리를 치는 일은 특별히 심방(Home Visit, 가정방문)을 통하여 구체화 된다. 교회사적으로 제네바의 개혁자 칼빈은 장로를 세워서 성찬식이 있을 때에 각 가정을 심방하게 했다. 이 후 개혁교회에서는 장로의 심방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다. 장로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신자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 맺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심방한다. 이 때 각 가정에서는 장로의 심방을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받아야 한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클라스 스킨더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의 마지막에서 ‘장로의 심방이 세상문화를 변혁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 3. 장로직의 어려움

가. 목사의 대변자, 성도의 대변자이다.

나. 교회와 교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다.

다. 공도 과도 모두 장로를 향한다.

---

8)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라. 때로는 속이 상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다.

#### 4. 장로의 축복

가.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된다(살전5:12-13<sup>9)</sup>).

나. 배나 존경을 받게 된다(딤후5:17<sup>10)</sup>).

다.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벧전5:10<sup>11)</sup>).

## II. 집사

### 1. 집사직의 유래

#### 가. 구약성경

직접적으로 ‘집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율법에는 이웃에 대한 구제나 봉사를 의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신약에 이르러 사도들을 통하여 집사직으로 제정되었다.

#### 나. 신약성경

(1) 사도들이 율법에 나타난 구제와 봉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신약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세웠다(행6:3<sup>12)</sup>).

### 2. 집사의 직무

고신총회 헌법 제7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집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회의 봉사와 교회의 서무, 회계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러한 원리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 9) 12.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 끼리 화목하라
- 10)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 11)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 12)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 가. 성경적인 교회관을 확립하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는 인식을 가질 때 건물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의식이 된다. 성경은 부름받은 우리 성도가 예수님을 모퉁잇돌로 하는 교회라고 가르친다(엡2:20<sup>13)</sup>). 그렇기에 교회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며 높아지는 곳이다. 교회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며 한 가족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가 주인 되신 주님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서 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관을 가슴에 품고 함께 종의 자리에서 봉사하자.

### 나. 평신도의 자리를 회복하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 제자들의 모임’이다. 우리 모두는 소명 받은 사역자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성도를 사역자로 부르셨다.

### 다. 아름다운 목회 협력자가 되라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누구나가 그 뜻을 안다. 가정,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 의미이다. 특히나 그 가정에서 화목해야 할 대상은 부부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가정의 주인공 아담과 하와는 일방적인 관계가 결코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하나됨과 완전함을 이룰 수가 있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인 가정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를 세워주셨다. 이들을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은 목회자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다. 온 교인의 협력이 필요하다. 특별히 집사 직분자들의 역할이 크다. 또한 집사는 목회자의 협력자인 동시에 다른 지체들의 협력자이기도 하다. 집사는 보수도 받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한다.

---

13)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렇다면 주의 일을 섬기면서 행복해야 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서로가 협력의 태도를 가질 때 가능하다. 교회 내의 다른 부서, 다른 직분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협력해야 한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자가 된다. 더 즐겁게 나의 부서를 섬길 수 있다. 나의 불편을 안고 협력해 준 그 집사님이 후에 나의 부서에서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

## 라. 덕스러운 언어로 공동체를 세우라

심리학자 J. 레이는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라고 말한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영성을 대변해 준다. 집사의 말 한 마디가 목회자나 다른 교인들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는 아픔과 상처를 한꺼번에 씻어 내릴 수 있다. 말에 관한 말씀 중 잠언의 한 구절을 보자. “20.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언18:20-21). 사람은 말의 열매로 만족하게 되며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꿈에서라도 부정적인 말을 일삼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하고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진다. 말은 불과 같다. 나의 작은 부정적인 한마디가 내가 속한 위원회, 공동체, 그 섬김의 기관을 태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그러나 반드시 말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행복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도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해야 한다. 누군가에 대해서 들은 말을 타인에게 말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들은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소문의 당사자, 말하는 나, 나에게 들은 사람이 다 믿음의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집사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직분이다. 덕스러운 언어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자.

## 3. 충성된 집사가 받는 축복

가. 경건한 자녀를 두게 된다(행21:8-9<sup>14</sup>).

---

14) 8.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9.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나.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며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딤후3:13<sup>15</sup>).

#### 4. 모범적인 집사들

가. 순교자 스테반(행8:58-60)

나. 전도자 빌립(행8:5)

다. 진실한 두기고(엡6:21, 골4:7)

### Ⅲ. 권사

#### 1. 권사직의 유래

가. 권사란 직분이 신약성경의 초대교회에 명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아직 조직화 되지 않은 상태였다. 초대교회에 비록 권사라는 직분의 호칭은 없었을지라도 오늘날 현대교회의 권사와 같은 역할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여인이 있었다. 바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뵈뵈라는 여인이다. 그녀는 바울을 도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돕는 후원자가 되었다.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던 여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녀를 자신의 심장과 같이 소중하게 여겼고, 로마교회가 그녀에게 합당한 예절을 갖추어 정성껏 맞이해 주기를 부탁했던 것이다. 권사란 바로 뵈뵈와 같은 사역을 수행하는 여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권사의 성경적 증거. 로마서12:8 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파라칼레오, παρακαλέω)는 권면하다, 위로하다, 화해시키다로 번역되는 동사이다. 그리고 이 단어의 명사형 파라클레시스(παράκλησις: 위로, 간청, 권면)를 번역한 말이 권사이다.

#### 2. 권사의 직무

고신총회 헌법 제8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권사는 당회의 지도 아래 교인을 심방하되 특히 병자와 궁핍한 자,

---

15)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환난 당한 자, 시험 중에 있는 자와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쓴다. 이러한 원리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따뜻한 치유자(상담자)가 되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었고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나 이 땅에서는 미완성의 존재로서 주님의 재림의 날 이루어질 완성을 향해 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병들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상처를 가진 사람이 교회로 찾아 오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내에서 상처를 받기도 한다. 그런 상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소중한 치유 방법이 있다.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다. 위로해주고 감싸주며 격려해 줄 때 상처가 치료된다. 큰 슬픔, 큰 고통을 당한 사람 곁에 있어 주는, 말 없이 같이 울어주는 권사가 필요하다. 함께 고통을 나누는 마음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세상이 말하는 학위와 자격이 아니어도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처 입은 자들에게 다가설 때 따뜻한 치유자, 따뜻한 상담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이셨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상처를 경험한 권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상담자로 사용하기 원하신다. 동병상련이라 했듯이 동일한 아픔을 경험해 본 사람의 손길 자체가 위로와 치유가 된다. 그렇기에 인생의 쓴맛을 많이 경험한 권사라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할 그릇일 수 있다. 의사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따뜻한 치유자/상담자로 귀하게 쓰임 받는 권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 칭찬받게 될 것이다.

### 나. 교회를 세우는 구역장이 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은 유모(살전2:7<sup>16</sup>)와 아버지의

---

16)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

마음(살전2:11<sup>17)</sup>)으로 사역했다고 고백한다. 여기서 유모는 어머니를 말한다.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돌아보고 섬겼다. 한편 바울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고 훈련했다. 우리가 구역을 섬길 때 유모와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들을 사랑하되 엄격함도 가져야 한다. 구역장과 구역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화롯불과 같다. 하나의 장작은 금방 꺼져버린다. 불도 약하다. 얼린 손을 데우기에도 불충분할 뿐더러 솥을 걸고 음식은 더더욱 할 수 없다. 그러나 장작이 모이면 오래 가고 불의 강도도 달라진다. 한 명의 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얼어붙은 몸을 녹인다. 커다란 무쇠솥을 걸고 수십 명이 먹을 음식도 만들 수 있다. 구역장이 구역원을 돌볼 때 구역원은 위로받으며 세워진다. 그리고 구역장의 헌신으로 구역원이 힘을 내고 자라갈 때 하나님은 구역장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며 그 구역원을 보며 구역장은 보람을 얻는다. 구역활동을 통해 교인들은 소속감을 갖게 되고 교회와 다른 지체들에 대해 애정을 갖게 된다. 구역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구역장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맛볼 것이며,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풍성히 받을 것이다.

#### 다. 행복의 오솔길을 찾아가는 권사가 되라

신앙은 신비의 세계이다. 저 밑으로 낮아지는 자리에서 지극히 높아지는 길이 있다. 우리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빌2:8-9<sup>18)</sup>). 눈물과 행복은 극과 극의 단어이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병립할 수 있다. 직분자는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행복하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권사의 직분으로 섬길 때 성도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그 길에 우리 주님이 채우시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환희와 행복이 있다. 그래서 “신앙의 세계”는 신비롭다. 이 행복의 오솔길에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다 바로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다.

---

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17)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8)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이다. 말 한 마디로 남편의 기를 세워 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다. 권사는 교회에서 어머니의 위치에 있다. 그렇기에 권사의 격려와 칭찬이 울려 퍼지는 교회는 절로 신이 나고 흥이 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권사는 온 교인의 귀감이 되며 주님께도 큰 기쁨이리라!

## 나가며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직분자가 서로를 잘 이해하며 협력할 때 교회는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것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세상은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제일영도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더욱 힘 있게 증거되며 영혼구원의 귀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행복한 직분자로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 Memo

